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업 면허제 도입방안 검토

정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방역과 소독, 사료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허가를 내주고 이들을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소 한 두마리를 기르는 영세 축산농가를 어떻게 처리할지다. 지금은 소나 돼지, 닭을 기르는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만 하면 된다.

1998년 IMF 당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가 2002년 2차 구제역 사태로 법을 개정해 등록제로 변경한 뒤 2003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비교적 대규모화된 축산농가의 경우 질병에 대한 방역과 소독 등을 제대로 하는 편이지만 소규모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방역에 소홀하고 이런 곳이 구제역 등 질병의 매개지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규모로 닭을 기르는 양계농가와 달리 전 원형 농장에서 닭이나 오리를 풀어 기르는 농가들에 정부는 주목하고 있다.

야외에 놓아기르는 소규모 닭과 오리사육 농가에 철새가 날아들어 사료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되고 여기서 다른 대규모 농가로도 시가 확산되는 것으로 최근에 발생한 AI 사태에 대한 역학조사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단 축산업 등록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등록 축종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은 소와 돼지, 닭, 오리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제역이 걸리는 우제류(발굽이 두쪽으로

갈라진 동물) 가운데 사슴과 염소도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50㎡에서 300㎡를 넘는 사육시설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가 등록하도록 의무대상 농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등록제를 아예 면허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규제완화라는 대세에는 어긋나지만 질병과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규제가 더 강해지는 선진국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안에 축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축산업 면허제가 도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도축·가공장 위생수준 높이기로

농어업 정책 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농식품부장관 장태평, 국민농업포럼 정재돈)는 지난 2월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도축·가공장 위생 수준 제고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 방안에는 가축의 도축부터 가공, 출하까지 일괄 담당하는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도축장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규모가 큰 도축장에는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형 도축장 중 LPC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를 LPC로 추가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울러 도축장 내 육가공장을 설치하기 쉽도록 농지·녹지에 있는 도축장 부지의 건폐율(현행 20% 이하)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도축 검사 강화를 위해 소·돼지 도축장에 올해 중 검사관 69명을 추가 배치하고 닭·오리 도축장에도 검사관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농어업 교육 수요자의 교육비 부담률을 현재의 0~30%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올리는 농어업 교육 체계 개편안도 의결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수요자의 교육비 부담비율을 높여 참여 의지를 높이고 교육 과정의 수준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생명·녹색·건강·매력이 어우러진 농어업 가치를 창출해 세계 일류 농림수산식품 강국을 만든다는 내용의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위원회 논의를 반영해 지난 2월 24일 비전 2020을 확정, 발표했다.

농촌진흥청

배합사료 ‘항생제’ 줄이는 종합연구 본격 착수

농촌진흥청(정장 김재수)은 국산 축산물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항생제 사용 저감 종합기술 개발을 올해부터 5년간 본격적으로 착수함에 따라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지난 2월 23일 사업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책부서, 학계, 산업계, 생산농

가 및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당면한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우리나라의 가축용 항생제 사용량은 선진국에 비해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걱정과 거부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정책적으로도 2011년 하반기부터 배합사료용 항생제를 완전 금지할 예정이다.

질병 예방과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어 온 항생제를 금지하게 되면 생산성 감소 및 질병발생 증가 등 축산업 농가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지금까지 항생제 대체자원과 축사 내 악취저감기술도 일부 개발해 보급을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관련예산을 확보해 2014년까지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항생제 저감 가축사육기술 개발을 착수할 예정이다.

우리 ‘맛닭’으로 이웃사랑 실천

농촌진흥청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우리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주변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희망나눔 이웃사랑’ 행사를 가졌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라승용)은 지난 2월 11일 라승용 원장을 비롯 부장, 수원청사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솔선해 수원시 팔달산 소재 ‘사랑의 집’에서 150여명의 어르신과 노숙자를 대상으로 축산원에서 개발한 ‘우리 맛닭’으로 닭죽 급식봉사를 실시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의 천주교 신자모임인 ‘성우회’는 10년 넘게 ‘사랑의 집’에서 2달에 1번씩 꾸준하게 급식봉사 활동을 전개해 왔다.

‘가축분뇨 시설’ 평가 신청 공고

농촌진흥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기술력, 경제성, 농가 적용성 등을 평가해 양축농가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2010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위해 희망업체의 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공고했다.

특히,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고,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신청자가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 전문위원회(위원장 건국대 오인환 교수)는 농진청에서 지난 1월 26일 위원회를 개최해 올해의 평가 세부지침을 확정했다.

그 동안 2006년 25개 시설, 2007년 18개 시설, 2008년 13개 시설, 2009년 15개 시설을 평가해 정보를 제공한 바 있으며, 작년부터는 가축분뇨 이용 바이오에너지 시설도 포함해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는 연 1회 실시되는데, 서류심사(4~5월), 현장실사(6~7월), 종합평가(8~9월) 순으로 이루어지며, 평가결과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와 책자로 발간해 축산농가와 관련 기관 등에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의 홈페이지(www.nias.go.kr) 또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031-290-1732 정광화 연구사, 031-290-1723 김재환 연구관)로 문의하면 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10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는 지난 2월 23일 2010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09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안)과 직제규정 개정(안) 등 6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역본부는 2009년 주요사업실적으로 검역시험장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체계를 구축했으며, 159개 초동방역팀의 현장방역 수행능력을 완비하고 20회 26개팀 104명이 조류인플루엔자(AI)·신종인플루엔자 등 주유가축전염병 의심축 발생농장에 투입했으며, 가축사육농가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100% 구축하여 방역활동의 신속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상시방역기간에는 상황실 운영 및 순회점검을 강화하고, 소규모농가에 대한 소독활동지원과 외국인 고용농가 예찰 강화, 교육·홍보활동 등을 펼쳤다.

또한 축사환경개선 지원사업은 표준화된 환경측정메뉴얼에 따라 4,329호에 실시함으로써 농가 생산성 향상 및 가축전염병 발생 감소에 기여했으며, 신종인플루엔자·돼지소모성질환·중계장 가금질

병 등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수입식용축산물 검사사업은 2만8천건 536천톤을 검사했으며, 검역업무의 계량화, 시료관리 체계 개선, 현물검사능력 제고, 검역제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검사업무를 정립시켰다.

가축질병 상담 · 신고 대표전화 운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축산농가들의 가축질병 상담과 의심축 신고를 위한 대표전화 1666-0682(방역빨리)번을 지난 2월 22일부터 설치 · 운영하고 있다.

대표전화는 축산농가가 가축질병에 대한 상담 · 신고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국 어디서든 1666-0682번을 누르고 안내멘트에 따라 해당 지역번호(D.D.D)를 누르면 관할 도본부로 연결되어 구제역 ·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의심축 신고는 물론 가축방역 상담 등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식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이재용)은 지난 2월 17일 내외 귀빈 및 본원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육 앞마당에서 현판식 및 기념식수를 가졌다.

본 현판식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이창범 축산정책관을 비롯 수의과학검역원 이주호 원장,



HACCP기준원 석희진 원장, 방역지원본부 배상호 본부장, 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 한국계육협회 서성배 회장,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회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제2기 도약을 위한 비전선포식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지난 2월 9일 본원 3층 대강당에서 농림수산식품

부 제2차관, 소비자단체협의회장, 농식품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션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석희진 원장은 기준원의 제2기 도약을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의 완전한 위생·안전성 확보」와 「안전한 축산물의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의 전문가 그룹」을 미션과 비전으로 선포하고, 기준원 발전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축산물 HACCP 정착과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정부기관의 HACCP 정책 기획 및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HACCP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둘째, 단계별 HACCP 지정을 확대하고 심사관 업무를 표준화·전문화함과 동시에 HACCP 홍보를 확대하여 Farm to Table의 HACCP시스템 기반을 구축해 나가며, 셋째, 지정업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과학적 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HACCP 심사기준이 개선되도록 하는 한편 HACCP 운용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정업소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넷째,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고객중심의 기관운영을 위해 민원처리 전담부서인 고객지원팀을 신설하여 민원창구를 일원화해 나갈 방침이다.

가축사육단계 HACCP 컨설턴트 간담회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현장에서 HACCP 적용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HACCP 운용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해 지난 2월 23일 가축사육단계 HACCP 컨설턴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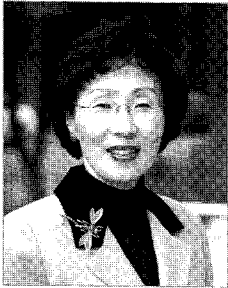
이번 간담회에는 2010년 국가지원컨설팅사업 선정업체와 농협, 유업체 등의 농가 지도 조직 등 21개 업체 37명이 참석했으며, 컨설팅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한 정부측 설명에 이어 기준원에서는 심사시 주요 지적사항과 실행위주의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 및 농장 HACCP 평가기준의 운영 방향 등을 설명 함으로써 향후 농가지도를 위한 컨설턴트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컨설턴트가 농가를 지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포도 함께 진행되었다.

(사)대한영양사협회

양일선 전 회장, 연세대학교 교학부총장 취임

(사)대한영양사협회 양일선 전 회장(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은 지난 2월 1일 연세대학교 최초의 여성 교학부총장으로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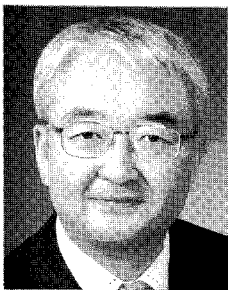


(사)대한영양사협회 제16대, 17대 회장으로서 영양사직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한 양일선 전 회장(현 감사)은 현재 한식세계화추진단의 공동 단장을 맡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알렌관 관장, 여학생처 처장, 생활관 관장,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과학연구소 소장, 사회교육원 원장 및 교무처 처장 등을 역임했다.

연세대학교 알렌관 관장, 여학생처 처장, 생활관 관장,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과학연구소 소장, 사회교육원 원장 및 교무처 처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동물복지학회

전남대 강문일 교수 회장 취임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강문일 교수(수의학과)가 최근 한국동물복지학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동물복지학회는 인간과 동물간의 조화로운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비롯 실험동물, 농장동물, 동물원동물, 야생동물 등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전략 및 효과적인 위생수단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단체이다.

강 교수는 한국수의병리학회회장, 대한수의학회 이사, HACCP기준원 이사, 인수공통전염병학회 이사, 가축방역위생본부 이사, 농식품부 가축방역협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축산관련단체 정기총회 소식>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신임 회장에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 선출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 2월 18일 20개 품목단체장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소속 단체장들은 200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과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제12기 회장으로는 (사)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을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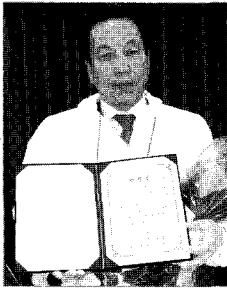
부회장으로는 생활개선중앙회 이미화 회장, 한국관광농원협회 진영호 회장, 한국쌀전업농중앙회 홍준근 회장이 선임됐으며, 감사는 한국양봉협회 배경수 회장과 한국화훼협회 백병현 회장이 맡아 활동하게 됐다.

또한, 2009년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단체장에 대한 공로패 시상과 전임 회장인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의 이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사)한국낙농육우협회

14대 회장에 이승호 현 회장 재 선출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제14대 회장에 이승



호 현 회장이 재 선출 되는 영광을 안았다.

지난 2월 18일 서울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에서 치러진 낙농육우협회장 선거에서 이승호 당선자가 3선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3년간 낙농육우 협회를 다시 이끌어 나가게 됐다.

이날 이승호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정책대안을 실현하는 강한 협회로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이승호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정책대안을 실현하는 강한 협회로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대한양돈협회

제17대 회장에 이병모 부회장 당선



(사)대한양돈협회 제17대 회장에 이병모 부회장이 당선됐다.

(사)대한양돈협회는 지난 2월 11일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제31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체 대의원 173명중 164명의 투표(부재자투표 12명 포함)를 통해 이병모 부회장을 제1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이날 부회장에는 김건호, 최희태, 이병규, 전흥우씨가 각각 선임됐으며, 이사는 이준

길, 이경록, 장성순, 정일희, 남정현, 이웅열, 윤흥만, 이상용, 배만용, 여영성, 배수한씨, 감사에는 차창희, 김규한씨가 각각 선임됐다.

신임 이병모 회장은 지난 2월 22일부터 (사)대한양돈협회 제17대 회장으로써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사)한국단미사료협회

김광수 신임 회장 선출



(사)한국단미사료협회는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동 소재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장 선거에서 신임 회장에 김광수 바이오사료연구소 대

표이사가 선출됐다.

이날 선거에는 정회원 127개사중 114개사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김 광수 대표이사는 이 가운데 60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신임 김 회장은 “협회내에는 단미사료분과, 보조사료분과, 섬유질가공사료분과, 섬유질배합사료 분과 등 4개 분과가 있다”며 “각 분과 별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단합된 협회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